

8장. 쉐라이어마허와 딜타이

[참고 - 편집자 역] 쉐라이어마허

기본적 인물 조사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해석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생애와 교육 배경

쉐라이어마허는 프로이센 왕국 브레슬라우(현재의 폴란드 부르츠와프)에서 개혁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기에는 모라비아 형제단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그곳의 경건주의 신학에 회의를 느껴 할레 대학교로 옮겨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볼프와 요한 잘로모 젤리의 영향을 받으며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학풍을 접했다.

주요 사상과 업적

1. 종교 이해

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교리나 도덕적 규범이 아닌, 개인이 신을 직접 체험하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보았다. 그의 저서 『종교론: 교양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요』에서 이러한 관점을 상세히 다루었다.

2. 해석학(Hermeneutics)

그는 해석학을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현대 해석학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하이데거와 가다머 같은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3. 기독교 신학

쉐라이어마허는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을 인간 내면의 감정적 경험으로 보고, 신학을 이러한 종교적 경험을 체계화하고 분석하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이는 전통적인 교리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 신앙의 내면적이고 경험적 측면을 강조한 접근이었다.

4.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

그는 전통적인 신학과 계몽주의 철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신앙을 개인적 경험으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현대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쉐라이어마허의 이러한 사상은 현대 신학과 철학, 특히 해석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오늘날에도 그의 신학적, 철학적 통찰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해석학적 성취(요약)

1. 보편 해석학의 정립

쉐라이어마허는 성서 해석과 문헌학적 해석을 특수 해석학으로 구분하고, 이를 넘어서는 보편 해석학을 발전시켰다. 이는 모든 텍스트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 원리를 확립한 것으로, 해석학을 독립된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2. 해석학의 학문적 지위 확립

그는 이전에 부수적인 분야로 여겨졌던 해석학을 타인의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해석학은 독립적인 학문적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문법적 및 심리적 해석의 강조

쉐라이어마허는 해석 과정에서 문법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법적 해석은 텍스트의 언어 구조와 규칙을 분석하는 것이며, 심리적 해석은 저자의 의도와 정신적 상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접근은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4.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 발전

그는 전체와 부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해석학적 순환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는 전체의 이해가 부분의 이해에 의존하며, 부분의 이해가 전체의 이해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해석 과정의 순환적 특성을 나타낸다.

쉐라이어마허의 이러한 성취들은 해석학의 기초를 확립하고, 이후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해석학적 접근은 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 편집자 역] 해석학에 대한 용어와 개념 이해

1. Verstehen (이해)

Figure 3 Theoretical Overview of the Eclectic Hermeneutics Method

이 도표는 <선택적 해석학 방법>의 이론적 개요를 단계별로 설명한 것으로, 각 단계는 해석 과정에서의 주요 절차와 목표를 나타낸다.

1. Verstehen (이해)

- 해석학적 과정은 이해(Verstehen)에서 시작
- 이는 텍스트와 맥락,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초기 단계

2. Interpretation Gramic dan Interpretasi Psikologi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

- 문법적 해석: 텍스트를 단어 → 문장 → 단락 → 장 → 책 → 문화로 확대하면서 해석. 이는 텍스트의 구조적 요소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도출하려는 과정

- 심리적 해석: 개인(self)에서 시작하여 시대, 장르, 문화, 사람, 세대, 가족으로 확장. 이는 텍스트가 형성된 심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

- 이 두 해석은 <Equiprimordial(동등한 우선성)>을 가지며 상호 보완적

3. Integrate Text and Context (텍스트와 맥락의 통합)

- 문법적 및 심리적 해석에서 도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텍스트와 맥락을 통합
- 이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4. Relativisme (상대주의)

- 이 단계에서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의미가 특정한 맥락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
- 이 과정은 텍스트를 <관찰과 문서화>,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여 해석

5. Wirkungsgeschichte (효과의 역사 또는 인식)

- 텍스트가 시간이 지나며 독자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탐구
- 이는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으로, 텍스트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과정

6. Bildung (형성)

- Bildung은 개인의 지적, 윤리적, 문화적 형성을 의미
- 해석학은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작용

7. Critical Reflection (비판적 성찰)

-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석 과정 전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재평가
- 이를 통해 텍스트가 현재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파악

이 도표는 선택적 해석학 방법이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텍스트와 맥락, 독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 이는 해석학적 과정이 구조적 분석(문법적 해석), 사회적 맥락(심리적 해석), 비판적 성찰로 이어지며, 독자와 텍스트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

Figure 4 File Analysis in the Eclectic Hermeneutics Method

이 도표는 <선택적 해석학 방법(Eclectic Hermeneutics Method)>에서 파일 분석(File Analysis) 과정을 시각화한 것. 도표는 연구가 진행되는 주요 단계를 체계적으로 나열

1. First 단계: 초기 단계

- Representation Data (데이터 표현): 연구자는 텍스트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과정의 출발점으로 함
- Verstehen / Understanding (이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자는 텍스트의 기본적인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
- Identification, Selection and Category (식별, 선택, 범주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분류하고, 텍스트의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춤

2. Second 단계: 문법적 및 심리적 해석

- 이 단계는 <문법적 해석(Grammatic Interpretation)>과 <심리적 해석(Psychological Interpretation)>을 포함. • 문법적 해석: 텍스트를 단어 → 문장 → 단락 → 장 → 책 → 문화의 흐름으로 분석. 이 과정에서 <재구성(Reconstruction)>을 통해 원작의 주요 의미를 복원 시도. • 심리적 해석: 개인(self)에서 시작하여 시대, 장르, 문화, 사람, 세대, 가족의 맥락으로 확장. • 이 두 접근법은 <동등한 우선성(Equiprimordial)>을 가지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

3. Third 단계: 다중 해석

- Multiple Interpretation (다중 해석)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분석. • Interaction Data (데이터 상호작용): 데이터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탐구. • Interpretation of Meaning (의미 해석): 텍스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해석이 진행. • Interpretation of Critic (비판적 해석): 텍스트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 • Reflection of Text Product and Language (텍스트 산물과 언어의 반성): 텍스트와 언어의 사용 방식을 분석하고 성찰.

4. Fourth 단계: 형성적 및 변혁적 해석

- Interpretasi Formatif dan Transformatif (형성적 및 변혁적 해석) 단계는 다음과 같은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 • 해석자와 저자의 세계관을 연결(Interpreter and Author Horizons): 해석자와 저자의 관점 사이의 연결을 탐구. • 메타이론적 해석 및 토론(Metatheoretical Interpretation): 메타이론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논의. • 텍스트 재구성 및 재생산(Reconstruction and Reproduction): 발견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

5. Fifth 단계: 비판적 성찰

- Refleksi Kritis (비판적 성찰): 해석과 연구 전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 이 과정은 텍스트와 독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통찰을 창출했는지를 평가

이 도표는 선택적 해석학 방법이 초기 데이터 이해에서 시작하여 문법적/심리적 해석, 다중적 관점의 통합, 텍스트 변혁, 비판적 성찰로 이어지는 과정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 과정은 해석학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텍스트를 깊이 이해하고 재구성하려는 목표를 반영한다.

서론

└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1768-1834)

- └ 19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적 신학자 중 한 사람 (w/ 헤겔, 키르케고르)

- "현대 해석학의 창시자"
- "현대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

성장

- '브레슬라우'(당시는 독일, 현재의 폴란드 부르초와프)에서 태어남
 - 프로이센(프러시아) 군대의 목사였던 아버지
 - 초기 교육) 모라비아 교단(또는 경건주의)에서 초기 교육 받음
 - 16세)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글을 씀
 - 목사(설교자)가 되는 것을 자신의 "적합한 사명"으로 여김
- 베를린의 자선(샤리테 Charité) 병원의 목사 (1796)
- 할레 대학에서 교수 (1804)
 - 동문
 - 크리스티안 볼프 Christian Wolff: 계몽주의 철학자
 -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현상학의 창시자
 - 폴 틸리히 Paul Tillich: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 '계몽주의' 학문을 학습 (구약에는 별 관심 없었음)
 - 철학적 신학과 철학, 특히 칸트, 레싱, 흄의 작품들을 학습
 - 칸트의 초월철학에 깊은 관심
 -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인식하는가)
 - "어떻게 지식이 가능한가" 의 문제를 다룸
 - 칸트의 "이성의 한계"에 대한 연구
 - 키르케고르의 "주체성" 개념 연구 (개인적 관여로서의 주체성)
 - 베를린 대학 설립에 관여 (1810), 이후 신학과 교수로 제직
 - 베를린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 (1809)

신학적 입장

- 모라비아 교단의 '보수적인 경건주의의 편협함'을 혐오했음
-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도 배척함
 - 그는 설교를
 -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나
 -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깨우는 것"으로 비유
- 보수적 신념은 배척, 그러나
 - "신 의식(God-consciousness)"
 - 신과의 깊은 연결과 인식 상태를 의미하는 영적 개념
 - 이는 단순한 믿음이나 관념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의식 상태를 의미
 -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
- <계몽주의>와 <성서비평적> 입장으로
 - 신학의 초월적 가능성(transcendental possibility)과
 - <참고-역주>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철학적 개념
 - 칸트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근본적인 구조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
 - 이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밝히는 데 기여
 - 경험과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들을 의미
 - 우리의 인식 능력이 대상을 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탐구
 - 경험의 선형적 조건, 보편성, 필연성, 인간 인식의 한계를 다룸
 - 경험의 구조화, 지식의 기반, 철학적 논증 방법 등을 사용
 - 계몽주의,
 - <참고-역주>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
 - 절대왕정, 봉건제도, 종교적 독단을 비판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
 - 과학과 이성에 기반한 세계관을 발전시킴
 - 성서비평적 입장을 보임
 - <참고-역주> 성경을 학문적이고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

- 성경을 신성한 텍스트로 보면서도 인간 저자들에 의해 특정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작성된 문서로 간주
 - 원래 의미와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
 - 본문비평: 성경 사본들을 비교하여 원본에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복원
 - 자료비평: 성경 본문의 원천 자료들을 분석
 - 양식비평: 성경의 문학 양식과 구전 전승을 연구
 - 편집비평: 성경 저자들의 편집 과정과 신학적 의도를 파악
 - 역사비평: 성경의 역사적 맥락과 사실성을 검증
- 스스로를 “더 높은 차원의 경건주의자”라고 불렀음
 -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믿음
- 1. 슈라이어마허의 영향, 경력, 주요 저작
 - 슈라이어마허는 19세기의 해석학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인물. 해석학에 대한 그의 정의는 <이해의 예술> 또는 <이해의 교리>로 정의함.
 - 도입
 - 해석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 (19세기)
 - ↳ 이는 20세기 후반 가다머의 두 번째 전환점에 비견
 - 해석학 (에 대한 그의 정의)
 - ↳ 단순히 “해석의 규칙”으로 정의하지 않고,
 - ↳ “이해의 예술(the art of understanding)” 또는
 - ↳ 타인과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과 과정을 의미
 - ↳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예술에 가까운 능력
 - ↳ “이해의 교리(the doctrine of understanding)”로 정의
 - ↳ 이해의 본질과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원리를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
 - (1) 낭만주의의 영향
 - 부분적으로 낭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음
 - ↳ “순수” 낭만주의에 대해 강한 회의
 - ↳ <프리드리히 쉐레겔의 낭만주의>와는 차별을 둠
 - ↳ <참고-역주>
 -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이론가
 - 그의 낭만주의는 단순한 문학 운동을 넘어 철학, 예술, 삶을 아우르는 총체적 세계관을 제시했으며,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미학의 가능성을 열었음
 - ↳ 낭만주의적 영향은 강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음
 - ↳ (동기하는 견해도 존재: 슈라이어마허의 작업을 “낭만주의자들의 진정한 선언문”이라고 부르기도 (루돌프 오토))
 - ↳ (비판적 평가도 존재: 마르틴 레데커, 가다머 등)
 - ↳ <참고-역주> 낭만주의
 - ↳ 이성과 질서를 중시하는 고전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남
 - ↳ 이성보다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 작가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내면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표현
 - ↳ 기존의 규칙과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독창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
 - ↳ 자연을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
 - ↳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를 탐색
 - ↳ 각 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역사에 대한 관심
 - 그의 해석학
 - ↳ 슈라이어마허는 “예감적”(이고 “여성적” 또는 “초이성적”) 요소를 강조
 - ↳ <참고-역주>
 - ↳ “예감적(divinatory)”이고 “여성적(feminine)”
 - ↳ 해석자가 저자의 마음과 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 ↳ 해석자가 저자의 입장이 되어 텍스트를 쓸 당시의 결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
 - ↳ 텍스트의 개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 ↳ “초이성적(suprational)” 요소
 - ↳ 종교의 본질을 이성적 사고나 도덕적 행위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둠

- 이성적 분석을 넘어선 전체성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뜻함
 -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에 대해 느끼는 전적인 의존감을 의미
 - 분석적인 방법을 거부 (즉 과학적이고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을 거부)
 - "기계는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지만, 살아 있는 나비를 분해하고 다시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복원할 수는 없다."는 관점
 - 이는 18세기 <이신론의 기계론적 모델>과 <합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됨
 - <참고-역주> <이신론의 기계론적 모델>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적, 종교적 관점으로,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보는 견해
 - 신은 우주를 창조하고 작동시켰지만, 그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음
 - 신은 '시계공'이나 '건축가'에 비유되며, 우주라는 '기계'를 만들고 작동시킨 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 우주는 고정된 자연법칙에 의해 운영
 - 모든 현상은 자연법칙으로 설명 가능
 - 신의 초자연적 개입이나 기적은 없음
 - 계시나 종교적 교리보다는 이성과 관찰을 통해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 이신론의 기계론적 모델은 당시 과학 혁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전통적인 종교관에 대한 도전이자 근대적 세계관의 출발점이 됨
 - 19세기 <유기체적 모델>로 대치
 - <참고> 생물학과 철학에서 생명체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명체를 단순한 기계적 요소의 조합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
 - (2) 경건주의의 영향
 - <할레대학>에서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할 자유를 느낌'
 - 경건주의 (모라비안 신학대학)에서 벗어남 (아버지를 설득하여)
 - <모라비안>은 칸트와 성서비평에 적대적
 - 친첸도르프 백작으로부터 유래
 - 영국의 웨슬리 교도, 퀘이커 교도와 연계
 - 경건주의는 머리보다 마음의 종교를 대표하는 경우 많았음
 - 다만, 이후 그의 신앙적 입장은 '경건주의'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계몽주의와 칸트가 인간의 독립성을 옹호하고 "자율성"을 인간 성숙의 표식으로 여겼던 반면
 - 술라이어마허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이 모든 참된 종교의 특징이라고 믿었다.
 - (3) 칸트 철학과 의 관계 (계몽주의 철학)
 -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 술라이어마허는 이성 대신 "직접성(immediacy)"을 창조적 이해의 핵심 요소로 삼았음
 - (경건주의, 계몽주의에 이어) 술라이어마허에게 영향을 준 요소는 <칸트의 철학>이었음
 - <칸트의 비판 철학>은 철학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이룸
 -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넘어서
 - <참고-역주>
 - 합리주의) 지식의 주요 원천으로 이성과 논리를 강조
 - 경험주의) 지식 획득에 있어 감각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 철학의 가능성과 기초를 다루는 <초월적 비판 철학>을 제시
 - 1781년에 《순수 이성 비판》을, 1788년에 《실천 이성 비판》을, 1790년에 《판단력 비판》을 출판하며 이성과 경험의 기초와 한계를 탐구
 - <신학>뿐만 아니라 <신학의 가능성>, <해석학>뿐만 아니라 <이해 자체의 가능성>에도 관심
 - 칸트의 철학은 신학에 '새로운 사고'를 요구
 -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정의하려 노력, 반면
 - 술라이어마허는 이성 대신 "직접성(immediacy)"을 창조적 이해의 핵심 요소로 삼았음
 - 직접성이 '이해의 창조적 역할을 구성'하고,
 - 이성이 '직접적 경험이 이해하거나 발견한 것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
 - 칸트는 우리가 "경험"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주로 '마음이 그것에 가져다주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
 - 술라이어마허는 이 주장에 동의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 우리가 느끼는 무엇이든지 간에 존재하는 "직접성"이라는 요소를 추가
 - 이를 단순히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감정(feeling)"으로 축소하는 것은 그에게 부당한 일이 될 것
 - 이는 심리학적 맥락이 아니라 보다 존재론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 <참고-역주> 슐라이어마허의 <직접성> 개념 이해

└ 신학적

- └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 이는 중재자나 매개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
- └ 종교의 본질을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으로 정의, 이는 이성적 분석을 넘어서 전체성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뜻함
- └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에 대해 느끼는 전적인 의존감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보았음

└ 해석학적

- └ 텍스트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
- └ 해석자가 저자의 마음과 의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중요시 여김
- └ 텍스트의 개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철학적

- └ 가톨릭의 중재신학(매개)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도 거부하는 개신교 정신을 반영
- └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신학자로, 종교적 경험에서 개인의 직접적인 역할을 강조
- └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정과 직관을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

- (4) 초기 저작, <종교론>

└ “참된 종교는 무한한 것을 행한 의미이자 기호”, 종교(기독교)를 문화적 경멸자들로부터 보호하려 함. (인간 이성중심의) 지식이나 과학의 언어로 종교를 재단하려는 것에 대한 변증 시도.

└ 1799년에 발표한 초기 저작인 《종교론》(Speeches on Religion)

- └ “참된 종교는 무한한 것을 행한 의미이자 기호다”
- └ “경건은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조각들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이 될 수 없다”

└ 기독교를 '문화와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 vs.

└ 종교를 “문화적 경멸자들”로부터 보호하려 했다

- └ 종교를 판단하기 전에 종교적 “전문가들”, 즉 목사, 신부, 신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 └ “종교는 지식이나 과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를 화해시키는 기반으로 제시

- └ <참고-역주> 계몽주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지적, 철학적, 문화적 운동. 이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전통적 권위와 미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함

- (5) 주요 저작과 강의

└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 개념 반영: <비교적(남성적, 객관적, 보편성)>과 <예견적(여성적, 공감적, 직관/감정)>. 칼뱅의 《기독교강요》에 비견되는 중요 저작인 《기독교 신앙》출간. <신약 개론> 수업 처음 실시 - 묵회 설교 방법론 강습

└ 저작

- └ 1800년에 《독백》(Monologues)을, 1805년에 《노트》(Notes)를 저술
- └ 1809-1810년에 《해석학》(Hermeneutics)으로 이어짐
- └ 1812년에 에세이 《성탄절 전야: 성육신에 관한 대화》(Christmas Eve: A Dialogue on the Incarnation)를 출판

└ <비교적(남성적)>과 <예감적(여성적)>이라는 그의 해석학 개념을 설명하는데 기여

└ <참고-역주>

- └ “비교적(남성적)”: 텍스트나 발화의 내용을 '보편적인 기준이나 원칙에 비추어' 분석하는 접근 방식
 - └ 객관적 접근, 보편성 강조, 객관성 지향
- └ “예견적(여성적)”: 텍스트의 개별성과 저자의 감정, 의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
 - └ 공감적 접근, 직관과 감정 강조, 개별성 존중

└ <철학적 윤리학> 집필

└ 1811년 《신학 연구 입문》(Brief Outline on the Study of Theology) 저술

└ 1821년에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인 《기독교 신앙》(The Christian Faith)을 출판

└ 기독교 신학의 고전

└ 사상사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작품

└ 강의

└ 구약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침

└ 성경학자라기보다는 “신약 개론” 분과 강조

└ 이 학문이 신학생들에게 신약 성경 설교에서 새로운 실천적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음

- (6) 헤겔과의 대립

└ 주요 경쟁자는 베를린 대학의 헤겔이었음

- 신학의 목적에 대한 상반된 견해

- 헤겔: 신학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학문으로 간주 ("신은 형이상학이다" 라고 정의)
- 슐라이어마허: 신학을 전문 목회자와 설교자를 양성하는 실용적인 학문(훈련 과정)으로 봄.

(7) 성장 과정에서의 신학적 입장 견지 포인트

- 성장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다섯 가지 요소

- 모라비아 교단에서의 (경건주의) 신앙
- 낭만주의
- 계몽주의 학문에 대한 개방성
- 칸트의 철학
- 해석학

- 관련된 다양한 사유들을 창조적으로 비판하고 결합하여 자신의 신학관을 형성

2. 슈라이어마허의 새로운 해석학 개념

-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 (정리)

슐라이어마허는 기존의 해석학이 주로 성경 텍스트 해석을 위한 규칙을 제공하는 데 그쳤던 것을 넘어, <“이해의 예술”>로서 해석학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 했다. 해석학의 새로운 정의 • 해석학은 단순히 이미 도달한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기 위한 사고 기술로 정의 • 철학적 해석학과 성경 해석학을 통합하여, 모든 텍스트의 맥락적, 역사적 이해를 강조 • 역사적 해석의 중요성 • 슈라이어마허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저자가 살았던 시대와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그들의 시대와 환경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강조하며,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역설 • 해석학적 순환과 창조적 이해 • 전체와 부분의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순환 개념을 발전시킴 • 해석은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효과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봄 •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 이해는 저자와 독자 간의 공통된 기반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독자가 “자신을 저자의 입장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1차 독자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 • 비판과 평가 • 슈라이어마허 이전의 해석학은 주로 문헌학적 접근에 치우쳐 있었으나, 그는 이를 철학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으로 확장 • 칼 바르트는 그의 자유주의적 해석학을 비판했으나, 그가 “시대를 연 인물”이라는 점은 인정 • 슈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은 기존의 문헌학적 해석을 넘어 철학적, 역사적, 창조적 접근을 통합함으로써 현대 해석학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후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침

- 슐라이어마허는 해석학이 그동안 주로 성경 해석을 위한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

- 이러한 규칙은 대체로 '사람들이 이미 도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

-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거나 시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

- “해석학은 사고의 기술의 일부이다” (이해의 기술)

- 당시 가장 현대적 의견: 해석학의 큰 전환점으로 작용

- <철학적 해석학>과 <성경 해석학>을 직접적으로 결합함

- 슐라이어마허는 모든 텍스트(성경 텍스트를 포함)의 <이해의 기술>은 “1차 독자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

- “역사적 해석만이 신약 저자들이 자신의 시대와 장소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타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

- “이전의 해석학은 일반적인 수준의 이해를 전제로 했으며,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만 기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말함

- 따라서 해석학은 단순히 문헌학적이기보다는 철학적 성격을 띠게 됨

- 해석자는 “난해 구절로만 시작해서는 안 되며, 쉬운 구절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

- 볼프와 아스트는 여전히 “과학적” 접근에 머물렀음 (기계론적 모델 - 역주)

- 슐라이어마허는 이들 해석학을 두 차례에 걸쳐 강의 함

- 문헌학적 작업 존중

- 아스트의 '해석학적 순환 개념'(1장에서 다룸)을 부분적으로 공식화(인식) 한 최초의 학자로 평가

-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과학적” 접근에 머무름

- 개념 연구 관련

- “사고를 결합하는 저자의 방식”을 검토해야 했으며,

- 전체를 (직관적으로 파악)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

- 이와 관련하여 슈라이어마허는 (해석학의 범주에)

- 시인, 철학자, 예술가도 포함해야 하며,

- 저자의 “사유 방식”을 검토해야 하고,

- “자신의 관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슐라이어마허는 (해석학을 통해) 단순히 “의미”를 찾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 그는 해석자가

-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생성되었는지”와 같은 문제처럼,

- <텍스트의 효과>에 대해 그리고 <그 효과가 지향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 ↳ “텍스트의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 때때로 이것이 <작업의 목적>이 되기도 함

- ↳ 그는 <작업의 의미>(sense of a work)와 <작업의 요지>(purpose of a work, 실제 수행하는 것)를 구분

↳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 개념은

- ↳ 저자와 독자 간에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것 역시 포함

- ↳ 이해되는 것은 저자와 독자 사이에 공유되는 것(공통적인 것)이 존재함을 의미

- ↳ 이해란 “저자의 입장에 자신을 놓아보는 것”을 의미

- ↳ (칼 바르트)

- ↳ 술라이어마허의 주관적 경험이라는 자유주의적 강조점은 반대

- ↳ 그러나,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영향력은 인정

- ↳ 새 시대를 연 인물이라 칭송

- ↳ 그의 학문적 영향력이 오래 지속될 것 또한 강조

3. 심리학적 해석과 문법적 해석 (비교적인 것 vs. 예감적인 것, 해석학적 순환)

해석자는 텍스트를 즉각적으로 경험하고, 그 안의 암시, 분위기, 독특한 이미지 영역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해석자의 역할 • 해석자는 텍스트의 즉각적인 독자가 되어야 하며, 여러 의미, 유의어, 상징을 고려 • 해석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간 경험에 대한 주의 깊은 이해를 요구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 • 이해는 항상 예비 지식에 기반하며, 이는 두 가지로 나뉨 - 인간에 대한 예비 지식: 저자와 독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해. - 주제에 대한 예비 지식: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 • 이러한 예비 지식은 부분과 전체 간의 순환적 관계를 통해 텍스트를 점진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함 역설과 순환 • “사람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알려면 말을 통해서야 한다”는 역설은 해석학적 순환으로 설명됨. • 즉, 텍스트와 맥락, 저자와 독자가 서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 술라이어마허의 접근법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대 해석학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 ↳ 술라이어마허는 신약 개론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학생들에게 성경 텍스트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수 있기를 바랬다

- ↳ 《노트》에 관련 내용 기술

- ↳ “해석자는 텍스트의 암시, 분위기, 이미지들이 속한 독특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 독자의 입장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여러 가지 의미, 유의어, 상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 해석은 삶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하며, “모든 아이는 해석학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

- ↳ “사람이 어떤 말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야 그를 알게 된다”

- ↳ 이 역설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설명 가능

- ↳ “특정 진술에 대한 이해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예비 지식(preliminary knowledge), 즉

- ↳ <인간에 대한 예비 지식>과

- ↳ <주제에 대한 예비 지식>에 기반한다”

- ↳ 이는 “기술적이고 ... 문법적 해석을 구성하며, 따라서 일종의 순환이다”

- ↳ <참고> 해석학적 순환

- ↳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은 텍스트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분과 전체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개념.

- ↳ 이 개념은 18세기 말 프리드리히 아스트(Friedrich Ast)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되었으며, 이후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한스-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에 의해 발전

- ↳ 1. 부분과 전체 간의 관계: 해석학적 순환은 특정 텍스트의 이해가 그 텍스트의 전체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 즉,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을 이해해야 하고, 각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

- ↳ 2. 순환적 과정: 이 과정은 반복적이며,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발생하는 이해의 변화를 반영. 독자는 각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전체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게 됨.

- ↳ 3. 맥락의 중요성: 해석학적 순환은 텍스트가 작성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 이는 텍스트의 의미가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그 배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냄.

- ↳ 4. 신앙과 이성의 관계: 해석학적 순환은 신앙과 이성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

■ 해석학적 순환의 (두 가지) 접근 방식

- ↳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순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 첫째.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 • 텍스트의 전체와 부분은 상호 의존적 - 부분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하고, 전체를 이해하려면 부분을 알아야 • 주석가는 각 구절이나 단락을 검토하며, 그 의미를 전체 텍스트의 맥락에 따라 수정해야 둘째. 선이해(Vorverständnis) • 모든 이해는 텍스트 주제에 대한 잠정적 (preliminary)이고 선행적인 이해(pre-understanding)에 기반 - 예: 음악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음악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 • 이 개념은 술라이어마허, 딜타이, 하이데거, 볼트만, 가다머 등 여러 학자들이 강조한 바 있다. 술라이어마허는 완전한 이해가 순환적이며, 이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해석학적 나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첫째, 텍스트 또는 작품의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강조

- ↳ 텍스트의 문법적 부분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하며,

반대로 전체를 이해하려면 부분을 이해해야

✓ 주석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

모든 구절이나 문장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의미는 전체 문장, 단락, 또는 책 전체의 의미를 바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반대로 책 전체를 이해하려면 단어, 구절, 부분의 이해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이해는 텍스트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잠정적(preliminary)이고 선행적인 이해(pre-understanding)에 기반함

볼트만(Rudolf Bultmann)은

“음악 또는 수학의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음악이나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필요로 한다”

이를 <선이해(Vorverständnis)>라 한다.

술라이어마허, 딜타이, 하이데거, 볼트만, 가다머는 이 용어를

두 가지 방식 모두에서 사용

즉, 잠정적(preliminary understanding)이고 선행적인 이해(pre-understanding) (편집자 주)

술라이어마허는

“완전한 지식은 항상 겉보기에는 순환적인 성격을 띤다. 각 부분은 그것이 속한 전체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 따라서 해석학적 순환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해석학적 나선 운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랜트 오즈본 Grant Osborne)

<참고 - 편집자 역> "해석학적 나선"이란

해석학적 나선(Hermeneutical Spiral)은 술라이어마허와 이후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의 확장된 형태. 이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이 단순히 반복적 순환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심화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강조. 특징과 핵심 개념: 점진적 심화 • 해석학적 순환이 부분과 전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나선형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이해가 <더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 • 예를 들어, 텍스트의 단어와 문장(부분)을 이해하면, 텍스트 전체(전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더 심층적인 이해로 이어짐. 순환의 발전성 • 단순히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순환적 구조와는 달리, 나선형은 <각 반복에서 새로운 통찰>이 추가되고,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한다고 봄. 적용 영역 • 이 개념은 성경 해석, 철학적 텍스트 분석, 문학 해석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적용. • 예를 들어, 텍스트의 역사적, 문법적 배경을 이해한 다음,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반응을 포함한 맥락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Grant Osborne의 설명 • 그랜트 오즈본은 이 개념을 발전시키며, 나선형 구조가 해석 과정을 <단순 반복이 아닌 점진적 진보>로 바라보게 한다고 설명. • 독자는 처음에는 제한된 이해로 시작하지만, 각 순환을 통해 텍스트의 복잡성과 깊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해석학적 나선형은 이해가 단순히 반복되는 순환이 아니라, 각 단계를 통해 <더 넓고 깊은 통찰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개념. 이는 텍스트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점진적 성장과 학습을 강조하며, 해석학의 중요한 원리를 나타낸다.

■ 해석학적 접근의 새로운 관점

문법적 해석 vs. 심리적 해석 • 문법적 해석: 언어학적 접근으로, 텍스트의 구조와 규칙을 분석하는 <비교적 방법>을 포함. • 심리적 해석: 저자의 의도와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예감적 방법>을 포함.

예제: 에세이 《성탄 전야: 성육신에 대한 대화》(Christmas Eve: A Dialogue on the Incarnation)에서 이를 가장 잘 설명

성탄 예배와 성탄 후, 가족들은 돌아와 예수의 탄생을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축하

남성들은 성육신 개념의 철학적 어려움을 토론하며, 그들의 “남성적” 원리는 비교와 분석에 초점을 둬

여성들은 예수께 찬송가를 부르며, 이를 직관적으로, 초이성적으로, 또는 더 즉각적인 관계를 통해 이해

술라이어마허는 여성들이 옳다고 언급

다만, 사실상 “여성적” 직관적 원리와 “남성적” 분석적 비교 원리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필요하다

◆ 관건은, 이러한 “여성적” 원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시되어 왔다.

술라이어마허는 비교적 방법과 예감적 방법이 해석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필수적이라고 주장

1. 비교적 방법 <문법적> - (언어적 구조 분석) • 특징: 저자를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텍스트를 분석 및 비교하여 이해를 도출. • 상징: “남성적” 원리로 표현되며, 분석과 논리에 기반한 접근법

2. 예감적 방법 <심리적> - (저자의 사고 이해) • 특징: 개별 저자를 즉각적으로 이해하려는 직관적이고 초이성적인 접근. • 상징: “여성적” 원리로 표현되며, 직감과 감정을 강조

☞ 두 방법은 상호 보완적

술라이어마허는 두 방법 모두 필요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해석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경고. - 예감적 방법만 사용할 경우: 모호성과 혼란의 위험. - 비교적 방법만 사용할 경우: 지나친 분석과 세부에 매몰될 위험

해석학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시작해야 하며, 직관과 분석을 균형 있게 결합해야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 해석학적 접근의 새로운 관점

슐라이어마허는 신약 성경의 해석을 <친구를 이해하는 과정>과 같다고 보았으며, <문법적 해석(비교적 방법)>과 <심리적 해석(예감적 방법)>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주장 문법적 해석 vs. 심리적 해석 • 문법적 해석: 언어학적 접근으로, 텍스트의 구조와 규칙을 분석하는 <비교적 방법>을 포함. • 심리적 해석: 저자의 의도와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예감적 방법>을 포함. 해석학의 철학적 성격 • 해석학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사고의 기술>로, 철학적 성격을 띠며, 언어와 사고는 분리될 수 없음. • 슐라이어마허는 “사람은 말하기를 통해 사고한다”고 강조.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 • 해석학에서 언어(문법적 해석)와 사고(심리적 해석)는 <동등하게 중요>하며,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불완전한 해석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언어 체계(la langue)>와 <언어 사용(la parole)> 개념과도 연결됨. 결합된 접근의 필요성 • 두 접근법은 실용적 전략의 문제일 뿐,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함. • 문법적 해석은 초기 분석을 돕고, 심리적 해석은 저자의 사고를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 슐라이어마허는 <문법적 해석(언어적 구조 분석)>과 <심리적 해석(저자의 사고 이해)>이 해석 과정에서 서로 보완적이며, 이를 균형 있게 사용할 것을 강조

- 슐라이어마허는

↳ “신약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친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썼다

- 많은 성경 연구에서 '예감적 접근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심지어 보수적인 대학들에서도 “성경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

↳ 이는 개인적 이해나 초이성적, 직관적 경향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지적 활동>으로 여겨진다

↳ 심지어 “적용”이 덧붙여진 경우라라도 그러하다.

- 슐라이어마허 자신도

↳ “문법적 및 심리적 해석”과 “비교적 및 예감적 해석”을 동일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물음에

↳ 확신할 수 없다고 함

↳ 다만, 두 가지를 단순히 동일시(단선적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며,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도해를 사용

■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

- 문법적 해석

↳ 언어학적이며 비교적 방법을 포함

- 심리적 해석

↳ 저자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며, 예감적 접근 방식을 포함

- 슐라이어마허는

↳ “모든 말하기 행위는 언어 전체와 화자의 사고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 저자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언어의 보편적 특성에도 관심을 가짐

↳ 《해석학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in Hermeneutics)에서 언어 전체에 대한 그의 강조

- 기타

↳ 가다머는 이해를 적용으로 통합 시키는 경향

↳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

- 뢰케(Lücke)와 딜타이

↳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이 심리적 해석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

- 키머러레는

↳ 언어가 심리학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

- <참고-편집자 역> 해석적 도해 이해 부분 추가

■ 결합된 접근의 중요성

↳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은 해석학적 작업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일 뿐, 둘 다 필수적

↳ 그러나 두 접근은 서로 교차하며 상호작용을 함

↳ 슐라이어마허는

↳ “해석학은 사고의 기술의 일부이며, 철학적이다. . . . 사람은 말하기를 통해 사고한다”고 강조

↳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실천적 전략의 문제일 뿐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 - 편집자 주)

↳ “심리적 해석은 언어를 개인의 사고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간주할 때 더 높은 수준에 있다. 문법적 해석은 초기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문법적 해석과 언어는 개인과 그 말하기를 언어 자체가 드러나는 계기로 간주할 때 더 높은 수준에 있다”

4. 슐라이어마허에 대한 추가 주제 및 평가

- (1) 해석 과정의 무한성

슐라이어마허는 해석 과정이 끝이 없으며, 해석자가 언어와 저자를 깊이 연구하면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며, 실제로 글쓴이조차 해석자의 분석이 자신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 바울과 삼위일체 신학, 무의식 개념 등과 관련하여 저자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결국,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다르며,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슐라이어마허는 해석 과정이 끝이 없다고 확신

- 해석자는 언어와 저자에 대해 계속 연구하면서 자신의 "언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 "인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봄
- 이를 통해 해석자가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
 - ↳ 논쟁거리!!!
 - ↳ 제자의 에세이는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 ↳ 그러나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 ↳ 삼위일체 신학은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아니었을까?
 - ↳ 게르트 타이센의 《바울 신학의 심리적 측면》 같은 책은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 ↳ 방언에 대한 현상을 <마음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설명을 포기해야 할까? (고저 14:25)
 - ↳ 아니면 타이센처럼
 - ↳ 설득력 있는 방언 해석, 즉 검열의 해제와 무의식의 분출로서의 방언에 대해 동의했을까? "(고전 12:10; 14:1-25 참조)
 - ↳ 저자보다 "더 잘 이해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 해석학과 인식론의 관계

- 술라이어마허는 해석학이 인식론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단순한 문헌학이 아니라 철학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해석은 예감적, 직관적이고 초이성적이며 여성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텍스트 이해는 인간관계와 유사하다. 이러한 초월적 통찰은 경건주의, 칸트 철학, 계몽주의 및 성경 비평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토런스는 신앙의 필요성을, 치머만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강조한다.
- 술라이어마허는 해석학이 지식 이론(또는 인식론)과 겹친다고 주장 (이는 타당한 주장)
 - ↳ 해석학은 이해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 ↳ 성경 해석학과 고전 해석학은 문헌학적인 것 뿐만 아니라 철학적
 - ↳ 해석학은 예감적, 직관적이고 초이성적이며 "여성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교적이고 비판적(남성적)인 요소도 포함
 - ↳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친구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
 - ↳ 이러한 초월적 통찰은
 - ↳ 경건주의와 칸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계몽주의와 성서비평의 발흥을 넘어서도록 이끈다.
 - ↳ 또한, "신앙"(토런스) 및 "하나님과의 친교"(엔스 치머만) '필요성'을 언급

(3) 공동체적 사고와 해석학

- 술라이어마허는 이해가 공동체적 사고와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와 화자의 사고 전체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반 해석학(이해의 본질 탐구)과 특정 해석학(이미 이해된 것의 입증) 사이의 차이를 강조했다. 또한, 해석학이 사고의 기술의 일부이며, 타인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술라이어마허는
 - ↳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사고의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 . . 모든 말하기 행위는 언어 총체성과 화자 사유의 총체성과 연관된다."
 - ↳ 이해는 "삶" 즉 '공동체적 삶'과 연결된다
 - ↳ 그는, 중요한 차이를 간파
 - ↳ "이해의 본질"을 탐구하는 <일반 해석학>과,
 - ↳ 이미 이해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뒷받침하거나 입증하려는 <해석학> 사이의 차이
 - ↳ "해석학은 사고의 기술의 일부이다"고 주장
 - ↳ 이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

(4) 해석학적 순환과 나선형 모델

- 그는 해석학적 순환을 인정하며, 오즈본은 이를 "해석학적 나선"으로 설명한다. 이해는 초기 해석에서 시작되지만, 항상 수정 가능하고 불안정하며,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더불어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는 언어와 저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해는 점진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 술라이어마허는
 - ↳ 해석학적 순환의 한계와 확장 가능성을 수용 (딜타이, 하이데거, 가다머와 마찬가지로)
 - ↳ "해석학적 나선"으로 부름 (그랜트 오즈본)
 - ↳ 이해는 "예비적" 이해로 비약하는 것에서 시작, 본질적으로 이해는 결코 결정적이거나 완벽하지 않다.
 - ↳ 이해는 수정 가능하고 임시적이며 불완전 | 이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 (비트겐슈타인)
 - ↳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 ↳ "언어에 대한 완전한 지식"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쓴 사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
 - ↳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완전한 지식이란 불가능하다고 주장

(5) 성령의 활동과 교회의 타락 가능성

그는 성령의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타락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는 종교개혁의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그는 성경 저자들의 개별성이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기본과 관점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라고 보았다. 또한, 성경 기록의 장르 변화를 인정하고, 해석학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기 내용들은 성령의 활동(사역)을 부정하지 않는다

- 이제는 교회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종교개혁 교리를 뒷받침하며 강조
- 심지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카톨릭교회는 부정)

술라이어마허는

- "저자들의 개별성(개체성)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의 산물이었다. . . . 기본과 관점의 변화는 성령의 산물이다".
- 성경 기록에서 발견되는 장르의 변화를 인정하며, 해석학에서 이들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 변화는, "바울은 변증법적 저자이며, 요한은 역사적 저자"라는 점도 포함

(6) 언어와 창조성의 차원

술라이어마허는 소쉬르의 언어 체계와 언어 사용의 구별을 예견하며, 텍스트의 기원(텍스트 배후), 내용(텍스트 내부), 효과(텍스트 전면)를 구별했다. 그는 해석자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텍스트의 창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술라이어마허는

-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언어 체계(langue, 랑게)와 언어 사용(parole, 파롤)의 구별을 예견
- 텍스트의 기원("텍스트 배후"), 내용("텍스트 내부"), 그리고 효과("텍스트 전면")를 구별
 - 해석자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 텍스트의 "창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창조적 해석-편집자 주)

(7) 역사성에 대한 비판과 변호

술라이어마허는 역사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가다머 등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타자를 이방인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석자가 자신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헤겔과 동시대인이었지만, 가다머나 하이데거의 사상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그의 역사성에 대한 현대적 입장은 추측할 수밖에 없다.

술라이어마허가 텍스트와 해석자의 "역사적 조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고 비판 (가다머와 다른 비평가들)

과장됨

술라이어마허는

- 우리가 "타자적인 것"을 "이방인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 해석자에 대해서도
 - "자신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는 것"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
- 다만 그는
 - 가다머와 하이데거의 저서를 학습하지 못함
 - 따라서 그의 '역사성에 대한 그의 가설적 사유'는 추측할 수 밖에 없음

(8) 술라이어마허의 자기 시대를 뛰어넘는 측면

술라이어마허는 성서의 무한한 중요성이 해석학의 한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성서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텍스트의 배경, 내용, 효과를 중시했지만, 배경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는 그의 의도 중심 접근이 낭만주의적 영향 때문이라고 보지만, 이는 발생적 오류가 아니다. "의도"는 저자의 목적을 의미하며, 바울의 신학적 전개처럼 의식적 목표로 이해될 수 있다. 리코르와 윌터스토프는 이러한 개념이 해석학과 신적 담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성경의 무한한 중요성이 해석학의 한계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썼다

- 그의 목표는 <성경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 <텍스트의 배경, 내용, 그리고 효과라는 세 차원의 구별과 강조>도 현대 철학자보다 앞서 선택된 업적
- 그럼에도
 - 배경(setting)에 관한 또 다른 비판 존재 (술라이어마허에 대한)
 - 의도에 대한 그의 강조는 낭만주의와 그 기원에 대한 관심 때문? 아니면
 - "발생적 오류(genetic fallacy)"를 범한 때문?
 - 그러나 이 비판에 동의 안됨
 - "의도(intention)"를 "저자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근거하는 모든 비판과 관련하여
 - 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의도"가 십자가와 부활신학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 바울의 접근할 수 없는 "내면적 정신 과정"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 그의 '의식적 의도' 중 일부를 얘기 한다는 의미이다.
 - 그가 발생적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라이어마허의 신학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석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를 <신학상의 약점>에 관한 것

가다머와 리코르가 수정적 역할을 제공했을 것

그러나 그들 또한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에 대한 많은 통찰을 기반으로 한 연구 업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빌헬름 딜타이의 해석학

빌헬름 딜타이(1833-1911)

인물

빌헬름 딜타이(1833-1911)는 술라이어마허의 후계자로 인정받으며, 그의 전기 술라이어마허의 생애를 집필했다. 칼빈주의 신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철학, 역사학을 공부한 후 바젤 대학(1866)과 베를린 대학(1882)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해석학을 Geisteswissenschaften (인문과학)의 기반으로 삼고 사회과학에 적용한 선구자였다. 술라이어마허를 존경했으며, 그의 연구는 독일어로 26권의 전집으로 남아 있지만, 영어 번역본은 많지 않다.

술라이어마허의 후계자

술라이어마허의 전기를 집필, 《술라이어마허의 생애》

성장

칼빈주의 전통의 신학자의 아들로 비스바덴에서 태어남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철학, 역사학을 공부

교수

1866년 바젤 대학

1882년 베를린 대학

성과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의 해석학 해석학의 발전 - 딜타이는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을 계승하고 발전 시킴 - 해석학을 인문과학의 방법론으로 확립하고자 함 주요 개념 이해(Verstehen)와 설명(Erklären)의 구분 - 자연과학은 설명을, 인문과학은 이해를 추구 - 이해는 모든 정신적 능력을 동원하는 과정 체험(Erlebnis)의 중요성 -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강조 - 체험은 시간적 연속성을 가진 유동적 상태 객관화된 정신(Objective Spirit) - 헤겔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사용 - 역사적 맥락에서 자기 이해의 매개체로 작용 해석학적 방법론 - 텍스트와 저자의 맥락을 고려한 해석 강조 - 부분과 전체의 순환적 이해(해석학적 순환) 적용 - 심리학적 해석과 문법적 해석의 결합 딜타이 해석학의 특징 - 역사성(Historicity) 강조: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이해 - 객관성 추구: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된 표현을 통해 이해하고자 함 - 보편적 해석학 지향: 특수 해석학들을 통합하는 일반 해석학 추구 영향과 의의 - 생활철학(Lebensphilosophie)과 실존철학에 영향 - 하이데거, 가다머 등 후대 철학자들의 해석학 발전에 기여 - 간호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방법론으로 활용 딜타이의 해석학은 인문과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확립하고자 한 노력으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인간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딜타이는 해석학을 Geisteswissenschaften(인문학, 문학, 사회과학)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 시도로 가장 잘 알려짐

(가이스테스바이센샤프텐)

해석학을 사회과학에 최초로 적용한 인물 중 하나

26권의 저서 (전집)

딜타이는 해석학에서 Geisteswissenschaften의 기초를 마련

철학의 전통에서 이론의 근거를 찾는 과정을 추적

주제와 해석자가 모두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기존의 해석학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

오귀스트 콩트의 실증주의를 순진하다고 거부

허버트 스펜서의 진화윤리를 과장되었다고 일축

급진적인 역사적 접근을 체계(시스템)에 대한 탐구(추구)와 결합시킴

헤겔의 “정신(Geist)” 과 “삶(Leben)”의 강조를 헤르더와 술라이어마허의 입장으로 대체하려 했다.

딜타이의 야망

딜타이는 베이컨이 자연과학을 확립한 것처럼, 인문과학을 체계화하고자 했다. 그는 인간의 자기의식이 도덕적, 역사적, 영적 차원을 포함하며, 단순한 자연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인문과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과정과 내적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 철학이 인간을 추상적인 인지 주체로 다룬다고 비판하며, “삶(Leben)” 또는 “체험(경험된 삶, Erlebnis)”을 인간 존재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다. 삶은 “삶의 표현(Lebensäußerungen)”을 통해 객관화되며, 기호, 언어, 법률 같은 인간의 관습과 제도를 통해 개별적 존재를 연결한다고 보았다.

“인문과학”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기를 희망

물리학의 베이컨

철학의 칸트와 헤겔에 비견될 만한 업적을 이루기를 희망

딜타이의 역사적 접근과 삶의 개념

딜타이는

““인식하는 주체”(데카르트, 로크, 흄, 칸트와 같은)의 혈관에는 실제로 피가 흐르지 않는다” 주장

데카르트, 로크, 흄, 칸트, 헤겔과는 대조적으로

딜타이는 “삶(Leben)” 또는 “체험(Erlebnis)”을 인간의 핵심적 범주로 정립

“삶”이란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적 경험에 있어 인간 활동과 경험의 공유된 흐름이다

서로 분리된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쇄 관계” 또는 얽힘이 존재한다

이런 “연관된 상태(Zusammenhang)”는 기호, 상징, 언어, 글이라는 인간의 관습과 법과 같은 제도 속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삶의 표현(Lebensäußerungen)>은 인간 삶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한다.

↳ “어떠한 자기성찰이 발견할 수 있는 것 .. 그 이상”을 포함한다

딜타이의 해석학적 공헌

1. 해석학의 확장 – 해석학을 언어뿐만 아니라 법, 사회과학, 모든 인간 제도로 확대했다. 2. 역사성 강조 – 해석과 대상이 역사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헤겔과 하이데거 사이의 입장에서 가다머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3. 삶과 공감 – 해석자는 “삶”을 매개로 추경험(nacherleben)을 해야 하고 공감(Hineinversetzen) 또는 이입(transposition, 이동)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그는 해석학의 범위를 언어를 넘어 법과 사회과학, 모든 인간 제도를 포함하도록 확장

↳ 이전의 해석학이 언어에 적용되었다면,

↳ 이후에는 모든 인간 사회와 구체적 제도에 까지 적용됨

둘째, 딜타이는 해석과 해석 대상이 역사적 맥락 또는 역사성에 의해 철저히 조건화된다고 주장

셋째, 그는 해석 대상과 해석자 사이의 공통 매체로 <“삶”>을 사용

↳ 해석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재경험(nacherleben)”해야 하며,

↳ “공감(Hineinversetzen)” 또는 “이입(transposition)”을 통해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추체험) 한다고 함

↳ 추체험 : 타인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실감(實感)하는 것 (편집자 주)

↳ <자아와 타자 사이의 차이 또한 강조>

↳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만큼 자아와 타자 사이의 차이 또한 강조 (딜타이, 리딩)

↳ <추체험 불가론 주장자> 에른스트 푹스, 만프레드 메츠거

↳ 모든 개인은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자의 경험을 절대 “추체험”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딜타이의 이런 주장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

역사적 간격과 차이의 인식 및 해석학적 순환

해석학적 순환 – 딜타이는 역사적 간격과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Verstehen)를 “너”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또한, 해석학적 순환을 채택하여 “전체와 부분이 서로를 통해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딜타이는 역사적 간격과 차이를 인식함

↳ 그는 “이해(Verstehen)는 ‘너’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 (가다머) 딜타이가 자기성찰에서 벗어나 인간을 삶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으로 위치 지우려 했던 노력을 칭찬

<해석학적 순환>을 채택

↳ 술라이어마허에게서 주창되어 하이데거, 볼트만, 푹스, 가다머에 의해 새롭게 진보한 개념을 채택

↳ “전체는 개별 부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개별 부분은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함

딜타이에 대한 가다머의 비판

가다머의 비판 – 가다머는 딜타이가 과학적 접근과 보편적 사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비판했다. 딜타이는 인간 삶에서 “연결성(Zusammenhang)”을 강조하며 인간 언어와 제도의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가다머는 이것이 개별성을 간과한다고 보았다.

가다머는

↳ 딜타이가 “과학” 또는 일관적이 보편적 사유에 대해 (가다머 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점을 비판

딜타이는

↳ 인간의 삶에서 “연관성(Zusammenhang)” 또는 상응하는 패턴이나 일반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추적하려 했다

↳ 이를 통해 그는 <인간 언어>와 <제도의 “과학”>을 정립하려 시도

↳ 가다머는 이것이 인간의 개별성을 배반한다고 보았던 것

딜타이가 남긴 유산

해석학의 확장 - 딜타이는 해석학을 모든 인간 제도로 확대했으며, 이는 하버마스와 에밀리오 베티의 논의로 이어졌다. 역사성과 시간성에 대한 강조 - 그는 해석에서 역사성과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해와 기독교적 의미 -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개념은 완전히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목표와 연결된다. 완전한 이해의 유보 - 딜타이는 “완전한 이해는 역사의 끝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요한복음 13:7의 예수의 말씀과도 유사한 관점을 반영한다.

딜타이는 해석학의 범위를 모든 인간 제도로 확장

↳ 그의 작업이 ‘사회과학’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됨

딜타이는 해석학을 특수한 종류의 “과학”으로 전환시키려 함 (사회과학화 - 편집자 주)

↳ 하이데거와 가다머) 이를 거부

↳ 이런 딜타이의 견해는

↳ 가다머의 입장보다 더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한 하버마스와 에밀리오 베티의 <삶-세계>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로 연결

- ↳ 그의 "체험" 개념은 예술작품도 포함
 - 그는 타당한 방식으로 해석학의 영역을 확장
 - ↳ 시대와 역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관심을 기울임
 - 이해의 방식으로의 <타인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보기>는
 - ↳ 완전하게 실행되기는 불가능해도
 - ↳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기독교적 목표는 된다고 하겠다.
 - 딜타이가 주장한 대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요한복음 13:7)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
- [참고]<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술라이어마허
 - ↳ 2장 (167쪽 ~)
 - '현대성'에 비추어 기독교를 재구성한 <자유주의 신학>을 다룸
 - 이미지(현재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 낙인찍기 용법
 - ↳ 자신보다
 - ↳ 좌측 (이런 용법으로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
 - ↳ 좌빨
 - ↳ 빨갱이
 - ↳ 우측 (근본주의)
 - ↳ 자신보다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을 비난하는 말로 쓰임
 - 자유주의가 실제 담고 있는 내용을 살펴봄
 - 자유주의 신학
 - 19세기 개신교에서 시작된, '현대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신학운동
 - ↳ 카톨릭에서도 이런 성향의 신학이 나타남
 - ↳ 용어가 다름 (모더니즘)
 - 신학적 특징
 - ↳ 1. '현대성'을 신학의 규범으로 삼음
 - ↳ 2. 아래로부터의 신학
 - ↳ 위로부터(계시)가 아니라 아래(인간의 상황과 경험)로부터 시작하는 신학
 - ↳ 3.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
 - ↳ 4. 초자연적인 것과 기적에 대해 회의적
 - ↳ 5. 예수의 인성을 강조, 신성은 상징적 의미로 재해석하려는 경향
 - ↳ 신성 : 인성의 완전한 구현
 - ↳ 상징적 의미로 재해석하려는...
 - ↳ 6. 보편구원론에 대한 선호, 진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 다원주의적 관점
 - (신학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이런 거대한 사조를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낸것은 아님
 - ↳ 여러 사상과 인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19세기 자유주의가 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작한 인물은 누군가?
 - ↳ 술라이어마허 (1768-1834)
 - ↳ 자유주의 신학
 - 술라이어마허 (1768-1834)
 - ↳ 자유주의 신학
 - (계몽주의, 경건주의, 낭만주의를 종합)
 - 계몽주의의 영향
 - ↳ 칸트에게서 영향을 받음 (초기 계몽주의자)
 - ↳ "종교는 순수 이성의 영역이 아니다." :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조
 - ↳ "종교는 윤리의 문제다"라는 칸트의 결론에는 만족하지 못함
 - ↳ "종교를 윤리의 영역에 제한시킨 것"에 대한 것
 - ↳ -> 칸트를 이 지점에서 넘어서고 싶었음
 - ↳ 그 지점이

경건주의와 낭만주의 었다

경건주의의 영향

계몽주의와 종교개혁 후기 :

- 메마른 지성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이라는 흐름이 일어남

- 진젠도르프, 모라비아교도

- 슐라이어마허, 청소년기에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음 (모라비안 학교에서 신앙 교육 받음)

- 성장하면서 보수신앙의 교리를 떠나게 됨

- > 그러나, 신앙에서 '감정과 체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의 강조점은 남았음

낭만주의의 영향

- 사상적으로는 낭만주의의 도움을 받음

- 감정, 상상력, 직관 등을 강조

=> 종교를 "감정의 영역"에 위치시킴

- (칸트는 종교를 "윤리"로 봄)

- 게펠(Gefühl) _ <종교론>, 1799

- '감정'으로만 번역한다면, 슐라이어마허가 의도한 것을 잘 담아내지 못함

종교

- (종교의 핵심) '인간이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

- => 모든 인간에게 '본유'적이라고 보았음

- 종교성이 모든 인간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

- (종교의 본질) 종교적 감정, 하나님 의식 (God-consciousness)

신학

- 종교적 감정에 대한 숙고, 언어화

- 종교적 감정,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교리나 명제가 필요

- 1차적인 것(종교적 감정,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2차적인 것(교리, 명제) 필요

- 교리는 이차적인 것

- 그러니 교리를 신성시 할 이유가 없음

- 시대가 바뀌면 교리는 당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

- => (현대인을 위한) "조직신학체계"를 완성 _ <기독교 신앙>

- 슐라이어마허 이전의 신학

- 위로부터의 신학

- 신의 계시, 본성에 대한 연구

- 칸트)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

- 그렇다면, 신학은 신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 슐라이어마허

- "신학이 초월적 영역(신의 본질, 본성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신을 인식 (말) 할 수 있다"

- 인간의 종교적 감정, 경험을 탐구

- 거기서부터 신에 대해 말하는 학문이다.

-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 이 전환이 너무나 획기적이었기 때문

- "계시"에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시작

- = '아래로부터의 신학'

- "슐라이어마허가 기독교에서 한 역할은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에, 뉴턴이 물리학에, 프로이트가 심리학에, 다윈이 생물학에 한 역할과도 같다" _ 174쪽

- 19세기 슐라이어마허가 깔아놓은 이 길로 달려간 현대신학은

-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게 됨

- =>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어마허의 신학

기독교론

- 기독교의 중심에 예수그리스도가 있다고 봄

- 인간이 가진 '하나님 의식'
 - 인간은 모두 하나님 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신성을 가진다.
 - 그런데 당연히, 모든 인간의 신 의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라는 것이 작고 부족한 것
 - 그런데
 - '완전한 하나님 의식'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 그 인간은 '완전한 신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
 - => '완전한 신의식'을 가졌던 유일한 인간이 "예수"
 - 전통적 기독교론 측에서 비판 받음
 - 예수의 신성 약화
 - "신의식이 완전한 인간"
 - 신의식이 불완전한 우리들과 신의식이 완전한 예수는
 -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인간'으로 인식함
 - [참고] 칼케돈 신조 (전통적 신학)
 -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 '한 인격 두 본성' 교리
 - 구속 교리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우리 대신)의 죽음으로 우리죄를 사하셨다'는 것으로 보지 않음
 - 술라이어마허는
 -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완전한) '하나님 의식'을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 '신자들의 하나님 의식이 고양되는 것'이라고 봄
 - '예수가 어떤 분인가' 보다는
 -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서 어떤 종교적 경험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음
 - 찬사 모음 (174쪽)
 - 현대 신학의 아버지
 - 교회의 왕자
 - 칼뱅 이래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 비판자들에게는
 - 거의 사탄 마귀와 동급
 - 볼트만, 틸리히 등의 (마귀 떼(?)들의) 조상
 -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나뉘게 되는 관점
 - 본질을 유지한 채 '현대적으로 표현'된 신학 vs. '본질이 변질'된 신학 으로 보느냐가 평가를 나뉘게 함
 - <추가> 헤겔에 대한 내용 (술라이어마허에 영향을 준 철학자)
 - 헤겔 학파
 -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 칸트와 헤겔이라는 두 물줄기가 만나 형성
 - 헤겔 철학
 - 헤겔 좌파
 - 헤겔 철학이 '기독교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신을 출현시킨다'고 믿음
 -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카를 마르크스
 - 유물론자
 - 기독교 밖에서 활동
 -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 ('한 때 신학자였던 이')
 - (바우어의 제자, 바우어보다 훨씬 급진적)
 - (신약성경 해석에 변증법 적용)
 - 정: 전통적 성서해석
 -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임
 - 반: 근대의 성서해석

- └ 이성인 납득할 수 있는 내용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임
 - └ 기적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봄
 - 합: 신화적 해석
 - └ '신화'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신약이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여김
 - └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신화적 사고는 일반적이었다고 봄
 - └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는
 - └ 저자들이 예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 └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 └ 신화적인 양식으로 쓴 것으로 이해
 - └ 복음서 안에 실제 역사가 많지 않다고 슈트라우스는 봄
 - └ 신화적 이야기들도 종교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보았음
 - 볼트만과 그 이후 신학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
 - └ ('기적은 신화다'라는 해석)
 - '역사적 예수 연구'의 선구자
- └ 헤겔 우파
 - └ 헤겔 철학을 기독교를 해석하는데 적극 활용
 - └ (헤겔의 정반합 사상을 성서나 교회사 해석에 활용)(변증법)
 - └ 페르디난트 크리스티안 바우어
 - └ (19세기 튀링겐 학파의 시초)
 - └ 정: 베드로가 대표하는 유대기독교
 - └ 반: 바울이 대표하는 이방기독교
 - └ 합: 초기 기독교